



남원 동충동, 노인일자리 건강체조로 시작

남원시 동충동(동장 김은영)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전에 건강체조를 실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건강체조는 전문강사의 지도로 매주 월, 수, 금요일(주 3회) 오전 8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진행되며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관절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취약하기에 작업 시작하기 전 신나는 음악에 맞춰 준비운동과 율동을 실시한다.
한 어르신은 "음악에 맞춰 덩실덩실 움직이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노인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자활근로사업 '환경부장관상'

보드레천기저귀사업, 제24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수상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천기자귀를 세탁·건조·배송해주는 전주시 자활근로사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보드레천기저귀사업이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최한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총 51개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지자체 2곳, 기업 4곳, 시민 4곳, 민간협력 10곳 등 총 20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전주지역자활센터의 보드레천기저귀사업은 '불편한 시도,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도전'을 주제로 서면심사, 면접심사, 온라인투표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높은 점수를 획득해 환경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김재훈 기자



저소득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아이의 아나절을 넣은 전용 천기자귀를 대여해주고 이를 다시 수거해 삶아 세탁까지 해주는 '세탁렌탈사업'으로 천기자귀 사용 확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작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 계남면,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장수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계남면 게이트볼장에서 제2회 계남면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은 백중을 맞아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루를 쉬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율놀이대회 24개팀, 장기대회 13팀이 참가한 가운데 계남 게이트볼장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민속놀이 대회 전 계남면의 자매결연지인 청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노래공연팀이 참석해 노래 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교류의 장도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류명용 계남면 주민자치위원장은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비록 작은 행사지만 백중 잔치마당을 개최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응수 계남면장은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민속놀이 어울림 한마당 대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민주평통 순창형,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운영식)는 12일 오전 11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 및 지역대표 자문위원, 협의회 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기 지역대표(지방의원)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규 지역대표(도·군의원) 자문위원에게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최영일 군수가 지역대표 9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

운영식 회장은 "앞으로 의정활동과 더불어 민주평통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순창=이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시의회 방문 사업설명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남원시의 회를 방문해 전평기외장과 이민선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충호 지사장은 "남원시와 공사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농업인의 소득 증진, 농촌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방비(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개발사업이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현재 남원지사에서는 지역 간, 수계 간 우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 개발된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수리시



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전평기 의장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대한시니어당구연맹 전국당구대회 개최

지난 11일 '2022 대한시니어당구연맹 전국당구대회'가 정읍시에서 열렸다.

이번 당구대회는 전국 각지의 당구 시니어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우리당구클럽, 뉴에이스당구클럽, 페이빌리어드 3곳에서 진행됐다.

전라북도당구연맹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각지의 당구 시니어 동호인 60명이 모여 자웅을 겨뤘다.

대회는 캐롬(3쿠션) 종목의 경기로 개인전으로 예·결선을 통해 우승자를 가렸다. 우승은 김철민 선수, 준우승은 박승준 선수 이어 조창섭, 김형주 선수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당구 시니어 동호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며 "정읍이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문화원, 광복 77주년 기념 해방소나무 축제 가져

광복 77주년을 앞둔 지난 12일 순창문화원(원장 최길석)은 순창초등학교 내 순창객사 앞에서 '광복 77주년 순창 해방소나무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순창문화원 이사과 회원 등 30여명은 순창문화원 박재순 사무국장의 77년 해방소나무 설명을 듣고, 해방소나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순창막걸리를 주었다. 이어 통일 노래와 만세삼창을 하며 남북 평화통일과 완전한 해방을 염원했다.

최길석 순창문화원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해방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난 해방 소나무와 독립 기념탑에 순창군민들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하며 준비했다"고 밝혔다.

순창초등학교 해방소나무는 순창객사 앞에 해방기념비와



함께 서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순창군민들이 해방 기념비를 세우고 순창읍의 주산인 금산에 있는 소나무를 초등 학교로 옮겨 심었다. 해방소나무는 둘레 1m 20cm에 높이는 10m에 이른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